



◇최문순 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등 동서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들과 경제 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지난 30일 인제 원통시장에서 열린 “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상품권 쓰는 날!” 행사에서 장을 보고있다.

“강원상품권으로 장보며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지키자.”

강원상품권을 갖고 전통시장에서 장보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상품권 쓰는 날’ 캠페인이 지난 30일 인제 원통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식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최문순 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남평우 도의원, 전만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오인철 대한건설

동서고속도로 개통 기념

‘강원상품권 쓰는 날’ 캠페인

협회 도회장을 비롯해 도내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강원상품권 쓰기가 두캠페인을 벌이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도 분청 경제분야 5개국 직원과 강원경제단체가 함께 전통시

장 점포 전체가 캠페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관별 구역을 정해 식사를 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도가 매달 정기적으로 강원상품권 쓰는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함께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매달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위주로 장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수주금액 671억 줄어 하반기 경기 먹구름

도내 건설업계 수주 현황

원주·강릉 미분양관리지정 영향

주택시장 위축·신규 건설 부족

공공·민간부문 투자감소 우려

올해 하반기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도내 건설투자를 주도한 주택시장 위축과 함께 신규 토목건설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5,641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1억9,600만원이 줄었다. 올 5월 한 달간은 전년 동월 대비 63.3%나 감소한 2,012억원에 그쳤다. 공공부분은 86.4%, 민간부분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 발주물량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공공부분이 수주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민간부분의 경우 감소 폭이 작지만 향후 주택공급 부진에 따른 수주물량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원주와 강릉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급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공급과잉도 향후 건설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목 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평창 올림픽 건설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면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물량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분할발주 및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민간부문 모두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강원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강원도 주관의 '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상품권 쓰는 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30일 인제 원통시장에서 최문순 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한의동 군의장, 남평우 도의원, 전만경 원주국토관리청장, 정경인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제원 대표 제35회 교정대상 수상

강릉 아라온건설 전제원 (52·사진) 대표가 제35회 교정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갖고, 전제원 대표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전 대표는 2003년부터 교정위원 활동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지원, 수용자 교육환경 개선, 수용거실 장판 교체비용 지원, 보라미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했다.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에게 삼계탕과 생수, 아이스크림 등을 전달했으며 2007년 강릉교도소 진입로와 주차장 환경 개선공사 때에도 기초골제와 제설작업을 지원했다. 전 대표는 아라온 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이번 봉사상 시상금 1000만원도 전액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했다.